TV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40 굿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 타임	30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살아보세	00 여름기획 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바른말 고운말(재)	00 수목드라마 〈부탁해요 엄마〉(재)	00 주말 특별기획 〈내 딸 금사월〉(재)	10 KBC 생활뉴스 30 닥터365 3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축제
12	40 채널A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재)	00 SBS12뉴스 50 닥터 365
0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 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다큐멘터리 3일(재)	30 키즈사이언스 5(재)	00 건강클리닉
2		00 2015 전국 대학 배구 〈성균관대 vs 인하대〉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똑똑키즈스쿨	00 영재발굴단(재)
3	00 직언직설	55 튼튼생활체조(재)	05 후토스 미니미니 (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마법천자문 40 경제 매거진 M 스페셜	00 SBS 뉴스 10 SBS 이슈 인 사이드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이웃집 찰스(재)	00 TV유치원 30 별별가족 35 동물의 세계	25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재)	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30 꾸러기 탐구생활
5	4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55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바이클론즈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 365(재)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뉴스7 30 필통	50 일일드라마 〈다 잘될거야〉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일일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30 생생 정보 55 글로벌 남편백서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같은 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내편 남편	30 리얼스토리 눈	55 영재 발굴단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토크 뉴스속의 사람들 55 숨 터	00 수목드라마 〈엄셈블리〉	00 수목미니시리즈 〈그녀는 예뻤다〉	00 드라마 스페셜 〈용팔이〉
0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5 라디오스타	15 한 밤의 TV연예
12	50 특별기획 원자력이 미래다 1부	50 동행(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다문화 사랑 06:10 세계의 눈(재) 07:00 최강전사 미니특 07:30 꼬마버스 타요 07:45 로보카 폴리 08:00 딩동댕 유치원 1 08:10 한글이 야호2 08:20 딩동댕 유치원 2	10:30 11:00 11:10 공대 11:20 12:00 12:10 13:05	부모-고수다 최고의 요리비결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다큐 오늘 세계테마기행(재) EBS 정오 뉴스 사선에서 지식채널e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사이틴-지구인 자격평기
08:10 한글이 야호2	13:10 13:40	
08:40 딩동댕 유치원 3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크레멍의 창의력	14:30	미앤마이 로봇 코코몽2 꼬마 철학자 휴고

01:40 02:30

03:20

06:00

06:40

07:30

09:10

05:00 뉴탐스런

10:10 2016 수능완성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15:15 마야의 모험 15:30 세계사 시간여행 비결 플러스 15:40 모피와 친구들 15:50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재) 16:30 방귀대장 뿡뿡이(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로보카 폴리 교에 가면

16:45 딩동댕 유치원 1~3(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 18:05 출동 슈퍼윙스 18:2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2 18:25 내 친구 아서 18:4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3

18:45 스쿨랜드 설내비띱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이스라엘 재발견〉 21:30 한국기행 〈골목기행 2〉 21:50 EBS 다큐 프라임 〈원령공주의 땅, 야쿠시마〉 22:45 극한직업 23:35 장수의 비밀 24:10 한국영화특선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18:55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4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9:30 EBS 뉴스

EBS플러스2

	_7
07:30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 15:20 만점왕 〈사회 3 시험대비강좌 15:50 // 〈사회 4	-2>
08:30 AT 시험대비강좌 16:20 " (사회 5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16:50 // 〈사회 6	
09:10 TV중학 〈국어(1)(2)〉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09:50 / 〈수학 1(하)〉 〈전과목5	_,
10:30 " 〈도덕 1〉18:00 TV중학 〈국어(5)	(6)
11:10 // (국어(3)(4)》 18:40 초등스토리 한국사 (1)(2)	
11:50 // 수학 2(하)》 19:20 필독 중학 국어 〈시〉	
12:30 EBS 특강 20:00 EBS 기획특강	
13:10 중학 중·기 시험 대비 문제풀이 20:50 EBS 기획시리즈	
(사회 1-2)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T 0.1
13:50 // 〈사회 2-2〉 22:00 중학 중·기 시험 대비 문제를	
14:30 " 〈역사 1-2〉 〈역사 2	-2>

知天命이 설문 오늘의 운세

〈영어a〉 21:50

EBS플러스1

〈기하와 벡터〉 14:50 올림포스

<지구과학 I > 18:10 EBS N제

〈세계지리〉 19:20

〈수학Ⅱ〉 15:40

〈화학 I 〉

08:2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20:50 2016 인터넷 수능

〈이은주의 수학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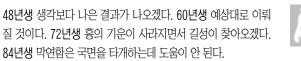
〈확률과 통계〉 14:00 2016 수능완성

16:30 〈기하와 벡터〉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법과 정치〉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00:00 올림포스 〈국어Ⅱ-알짜개념〉 12:10 올림포스 〈국어Ⅱ-알짜개념〉

// 〈고교 영어독해-iunior〉 13:05 수능특강 light



〈수학 I〉 22:30 박봄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행운의 숫자 : 56,83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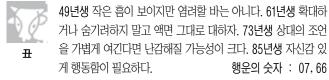
〈확률과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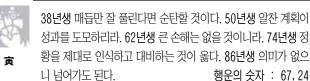
〈기하와 벡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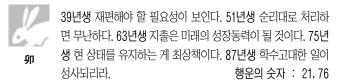
〈기하와 벡터〉

〈동아시아사〉

〈문학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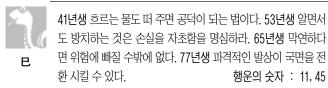






40년생 기왕이면 다홍치마다. 52년생 절호의 찬스이니 절대로 놓치지 말라. 64년생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노파심은 버려 도 된다. 76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25,34



42년생 집착할수록 손해를 보니 빨리 포기하는 게 나을 것이다. 54년생 등잔 밑이 어둡다는 사실을 실감하리라. 66년생 원칙대 로 처리하면 면액할 수도 있느니라. 78년생 적기에 실행해야 효 과를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2,95

9월 16일(음 8월 4일 乙未)



午

43년생 초기 계획과 다르게 이행될 가능성이 크다. 55년생 형식 적인 절차는 사족일 수 있다는 것을 알라. 67년생 기묘하게 연계 돼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79년생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행운의 숫자 : 54,39



44년생 확실한 안전의식이 절실하다. 56년생 애초 예상대로 이 행하면 순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68년생 애매한 상황이라면 굳 이 실행할 필요는 없다. 80년생 가까스로 벗어나게 될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29, 48



酉

45년생 투명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다. 57년생 주저 하지 말고 확실하게 붙잡아 두는 것이 유익하다. 69년생 독창성 을 발휘하는 것이 유용하다. 81년생 지속적이어야 실효성을 갖 는다. 행운의 숫자 : 63, 15



46년생 탄력을 받으면서 일취월장하리라. 58년생 누구든지 원 칙을 지키고 무엇이든지 정확해야 한다. 70년생 기대치에 못 미 치더라도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82년생 임의적이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72,30



47년생 일상을 내려놓고 파안대소하게 될 일이 생기겠다. 59년 생 상태를 정비하고 재충전해야 할 시기다. 71년생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83년생 판도는 자신만 을 기다려 주지 않느니라. 행운의 숫자 : 90,9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사도' 매력은 정공법 기교 아닌 돌직구 연기

영화 '사도' 개봉앞둔 송강호



"감독님이 사석에서 유아인을 캐스팅한 이유를 이렇게 말 씀하셨어요. 송강호가 현란한 변화구를 던질 텐데, 그걸 받아 내려면 유아인이 좋겠다고. 그걸 들은 저는 '어라, 난 직구 던 지려고 했는데?' 했죠."

영화 '사도' 개봉을 이틀 앞둔 송강호(48·사진)는 이 영화를 쓰고 만든 이준익 감독과 사석에서 나눈 대화를 전하며 웃었 다.

'사도'는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끝내 비극 에 이르는 모습을 자잘한 기교 없이 묵직하게 그려낸다.

영조의 탕평책과 당파 문제를 건드리기는 하지만, 사도세자 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엇갈린 부자관계가 크게 다뤄진다. 자연스럽게 영조의 뒤틀린 내면과 점점 광기 를 품는 사도세자의 내면이 부딪히다가 한쪽이 철저히 부서 져 깨져나가는 모습이 집요하게 그려졌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정공법이 아닌가 해요. 임오화변 을 다룰 때 화려하고 인위적인 기교를 부리는 게 아니고 가장 정직하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정통으로 돌직구를 던 져야 하는 게 아닌가 했어요. 그러고 보니 제 역할을 왜 변화 구라고 표현했는지 감독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웃음)"

조선시대 왕실의 이야기를 다룬 TV드라마나 영화, 역사 다 큐멘터리는 숱하게 만들어졌고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는 그 극적인 요소 때문에 특히나 자주 대중을 만났다.

그럼에도 '사도'에서 영조의 모습은 대단히 '일상적'으로 묘 사돼 시선을 떼기 어렵다. 아들을 대할 때 "너 공부를 해야겠 다는 생각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니?" 같은 현대극의 말투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에 익숙해진 관객에게 당황스럽게 들 릴 법도하다.

"사료를 보면 실제로 영조가 반말도 하고 욕도 하고 했다고 하죠. 우리가 아는 왕의 말투라는 게 드라마를 통해 고정관념 으로 박히지 않았나 싶어요. 관객이 낯설 수도 있지만, 그게 맞 다고 생각하면 그 낯섦을 뻔뻔스럽게 깨야하는 게 배우의 본 질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송강호는 '변호인'의 흥행 대박 이후 쉬고 있을 때 '사도'의 시나리오를 받았다. 연기해야 하는 인물의 복잡한 심리나 배 우의 실제 나이와 수십 살 차이 등 모든 것을 봤을 때 배우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배역이지만, 그는 그래서 도전하고 싶 었다고 했다.

"부담은 있겠지만,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조의 개인적 고통이 시나리오에 깔려 있었으니 까요. 저부터 영조라는 인물의 변화무쌍한 심리가 궁금해서 탁구해보고 싶었어요."

이준익 감독과 송강호라는 두 영화인의 이름이 지니는 무게 감을 생각하면, 둘의 만남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새삼스

"변주를 많이 하는 현장이 있는가 하면, 정한 대로 쭉 밀고 가는 현장이 있는데 이 감독님 현장은 후자더라고요. 배우들 이 완벽하게 준비한 상태로 들어가야 해요. 영조라는 어마어 마한 캐릭터를 현장에서 연기할 때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일 까 두렵기도 했죠."

송강호가 해석한 영조는 "평생 외롭게 산 사람"이었다고 한

"태생에서 오는 콤플렉스, 주변의 도전에 맞서 정통성을 지 켜야 하는 내적 고통은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였겠죠. 그 게 발현된 부분이 뒤늦게 얻은 아들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을 까요. 70세 노인 영조를 연기하면서 갈라지는 목소리를 낸 것 도 단순히 나이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외로운 군주이자 아비 로서 고단한 인생을 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송강호는 사도세자를 연기한 유아인에 대해서 "이 영화의 문법을 깨우치고 있더라"고 칭찬했다. 송강호와 유아인의 나

이 차는 19살이다. "대단히 정직하구나, 싶었어요. 사도세자의 광기라는 건 테 크닉으로써 연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경계하 고 진심을 믿고 연기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의 영

조 연기와도 호흡이 잘 맞는 것이고요. "" 송강호라는 이름은 현재 한국영화에서 대체 불가한 무게감 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암살'과 '베테랑'이 연이어 1000만명 을 돌파한 가운데 송강호라는 배우가 출연한 '사도'가 올해 한 국영화 중 세 번째 천만 영화가 될지 이목이 쏠려 있다.

이에 대해 송강호는 겸손의 미덕을 강조했다. "천만은 정말 생각도 못하죠. 이제까지 그 어떤 영화도 천만 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족하고 미 흡하지만, 우리가 열정을 쏟아 최선을 다했다면 관객들이 좋 아해줄 거라는 생각일 뿐인 거죠. 배우로서 제 무게감에 대한 말씀도 감사하지만, 격려라고 계속 생각해요. 20여 년간 제 영 화 봐 준 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건 부담이면서 힘도 돼요. 저

는 늘 작품마다 부단히 노련해야 하는 일개 배우입니다."

소녀시대 '이별시대'

소녀시대 '태연'

태연·'엑소' 백현 1년 3개월 만에 결별 '소녀시대' 티파니·윤아도 최근 헤어져

그룹 소녀시대의 태연(26)과 엑소의 백현(23)이 1년 3개월 만에 결별했다. 15일 복수의 가요관계자에 따르면 태연과 백현은 최근 연인관

계를 정리했다. 이들은 각자의 바쁜 일정 때문에 사이가 소원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태연과 백현은 작년 6월 "친한 선후배로 지내다 최근 들어 (서 로에 대해) 호감을 갖기 시작한 단계"라며 사실상 교제 사실을 인 정했다. 이들은 3살 연상연하이자 SM 공식 1호 커플로 화제를 모 았다. 태연은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엑소 단독 콘서트에 몰래 참 석해 백현을 응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연은 현재 소녀시대 정규 5집 '라이언 하트'(Lion Heart) 활 동과 함께 데뷔 후 첫 솔로 앨범을 준비 중이다. 백현은 엑소가 오 는 10월 국내 최초로 여는 돔 콘서트에 참여한다. 또 영화 '독고' 도 촬영 중이다.

지난 5월에 티파니와 닉쿤, 지난달에는 윤아와 이승기가 헤어 지는 등 소녀시대 멤버들의 결별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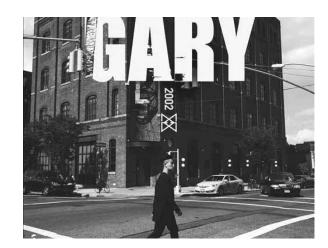
'리쌍' 개리, 첫 정규 앨범

21일 발표 … "완성도 위해 1년간 준비"

힙합듀오 리쌍(개리, 길)의 개리(37)가 오는 21일 첫 번째 정 규 앨범을 발표한다.

소속사 리쌍컴퍼니는 개리가 총 10트랙으로 구성된 정규 앨 범 '2002'를 선보인다며 2곡을 타이틀곡으로 결정해 두 편의 뮤 직비디오를 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앨범은 지난해 1월 개리의 솔로 미니앨범 '미스터, 개' (MR, GAE) 이후 1년 8개월의 긴 작업 기간 끝에 완성된 신보다. 다양한 뮤지션들이 참여했으며 각기 다른 매력의 곡으로 채 워져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 다. 전날 공개된 재킷 이미지에는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한 개 리의 모습이 담겼다.



소속사는 "뉴욕에서 진행된 앨범 이미지도 지난해 봄에 찍 어둔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앨범 준비를 했는데 완성도를 위 해 곡 작업과 모니터링을 반복해 이제야 선보이게 됐다"고 설 명했다. /연합뉴스